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⑪ 금강경서 읽는 생태적 메시지

▶한줄 요약
〈금강경〉은 공의 이치를 설한 대표 대승경전이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라는 4가지 상이 없어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 생태적 삶도 마찬가지다.



너는 곧 나…분별없는 삶이 '생태'다

내 괴로움 없애려면

〈금강경〉은 모든 존재의 공한 이치를 말씀하신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금강경〉의 첫 장면은 부처님이 걸식을 마치고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발우를 정리하고 발을 씻으신 후에 자리를 펴고 앉자, 장로 수보리가 일어나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보리의 질문은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심"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고, 보살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부처님의 대답은, 탯줄로 태어난 포유류(태)와, 알로 태어난 조류(란), 습기로 태어난 파충류(습), 세포 분열로 태어난(화) 등과 빛이 있고 없는 것, 생각이 있고 없는 존재 등을 나열하고는 이 모든 중생을 완전히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서는 남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다.

실제 필자도 과거 개인의 실존에 대한 깊은 번뇌가 있을 때 사회적 문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도우려는 행동을 하다보니 내 고민은 없어지고 내면을 갉아먹던 상처가 어느새 사라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공감됐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한 뒤라도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 덕분에 너의 고통에서 해소됐다고 생색내며 또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도왔다는 마음까지 사라져 도운 바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러야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신다. 참으로 깊은 경지이다.

어머니들도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운 뒤 세월이 지난 후 그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푸념하며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효도, 댓가를 기대하는 보상심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헌신한 뒤에도 마음의 밑바닥에 보상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대접을 기대하고 때로 보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서운해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도와주었다고 티내고 상(相)을 내는 것이다.

4가지 相의 생태적 가르침

앞서 언급했듯이 금강경에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등 4가지 상(相)을 말씀하신다.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은 구분하고, 나눌 수없이 연결돼 있는 인연의 이치임을 가르치셨지만,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가르고, 나누고, 구분하고, 분리하며 사고해 왔다. 그렇게 경계를 짓고 분별하는 것이 모든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의 실제 화근이 되었다. 그래서 4가지 상을 생태적으로 한번 돌이켜 조명해보고자 한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모습.

첫 번째로 아상(我相)이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기의 주관과 입장에 사로잡혀 다른 이를 '그들' '저들'로 타자화시키고 대립,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에 함몰되어 있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이전투구의 경쟁이 있다. 상대의 실패는 나의 성공의 발판이 되며 너의 성공은 배 아픈 일이 된다. 경쟁사회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터전인 학교조차 협동하고 돕고 배려하기보다, 이기는 교육, 경쟁해 승리하는 교육을 가르친다. 피어린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짓밟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경쟁은 곧 투쟁과 전쟁으로 확장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약자들이 받게 된다.

두 번째, 인상(人相)이란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중요하다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이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동물, 식물등의 존재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마땅히 이용되고 희생돼야 할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은 수탈되고 파괴되어도 상관 없을 뿐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인간은 비인간을 구분하여 하위에 두고 차별해 왔다.

또한 인간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익충과 해충'을 구분한다. 그래서 해충은 씨를 말려 '박멸'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름없는 풀들을 '잡초'라고 규정하여 '제거'하겠다고 하여 농약과 제초제, 살충제로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1960년대 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2차대전 이후 획기적인 만능 살충제이자 말라리아 퇴치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물을 죽이고 위험한지를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DDT가 호수와 강물의 플랑크톤이 먹어 몸에 축적되고 그것을 먹은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의 몸에 축적(생물학적 농축)됐으며, 결국 이들을 먹은 새들이 대량으로 죽게 되자 새들이 울지 않은 봄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환경운동을 본격화하게 만든 〈침묵의 봄〉의 내용이다.

空 이치 설한 대승경전 '금강경'
4가지 相 없어야 보살에 이르러
분별을 제거해야 깨달음 얻듯이
생태적 삶도 분별 끊는 데 있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세계 탄소배출량 중에서 축산업이 18%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는 14%를 차지하는 자동차 항공기등의 교통분야를 능가하는 양인 것이다. 오늘날의 소, 돼지, 닭, 오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려고 태어난 짐승들이며, 인간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 옥수수 등의 곡물의 절반은 사람이 아닌 축산 동물의 사료를 위해 재배되고 있다.

아우슈피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콩고의 고무를 채취하기 위해 콩고국민의 1000만 명을 학살하거나 손목을 자른 대량학살을 제노사이드(Genocide) 이라 부른다. 현재 육식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동물들의 살육의 상황은 생물종의 파괴와 더불어 에코사이드(생태살해, ecocide)고 할만한 행위이다.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는가

세 번째는 중생상(衆生相)이다.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글에는 동물과 비동물을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약한 동물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려고 저항한다.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한다. 최근 동물보호나 동물권 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5000만 인구 중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살다보니 개와 고양이등은 가족보다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된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로 인해 고래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나 식용으로 잡힌 개들을 구출하는 활동까지, 동물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는 채식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동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식물도 존재해야 하며 흙과 모래, 바위등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동물까지는 관심을 두지만 이들 식물과 비인간 비생명들은 소중하게 지켜야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크고 작은 온갖 벌레와 곤충 등, 생물들이 살고 있는 물웅덩이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들 늪과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습지로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습지보존을 위한 람사르 협약에 인제의 대암산 용늪을 시작으로 우포늪과 순천만 보성 갯벌, 최근 장항습지까지 24개가 가입돼 있다.

또한 1872년 미국의 엘로스톤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도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설악산, 덕유산 등 18개의 산악형국립공원과 다도해, 한려해상, 태안해안 등 3개의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경주와 같이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보존해야할 소중한 가치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레저와 위락시설등 인간의 이용대상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보존해야할 곳으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개헌을 통해 '자연의 존재 자체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와 '(훼손됐을 경우) 원상회복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권을 세계최초로 헌법상에 명기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2017년 4개의 강에 대한 법적 권리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시의회는 2010년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분별을 넘어선 불일불이의 사고

네 번째는 수자상(壽者相)이다. 목숨이 있고 없는 것, 삶과 죽임이 있다고 구분하는 것이다. 간혹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마지막의 내용을 기조로 설명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기후변화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_2)와 메탄가스(CH_4), 아산화 질소 등이 심각한 원인 물질이다. 산소와 질소, 탄소와 자외선과 적외선, 다양한 방사능 등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은 한시도 지속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보이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너를 가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동물과 식물을, 생명과 무생명, 존재와 비존재를 갈라놓고 그것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요소론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임을 이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이치로 보면 구분하고 가르는 것은 〈분별심, 또는 경계〉라고 하여 인간의 미망과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존재는 현상적으로 구분되어 보이나 근본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이 생태적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유정물과 무정물도 모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두 불성을 갖는 존재라고 하셨다. 피부 속에 갖힌 나만이 나(我)라는 개별적 자아에서,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나(관계적 자아)이며, 수많은 동물, 식물, 자연 등의 생태계가 바로 나의 확장이라는 깨달음(생태적 자아)이고, 자연과 생명 이웃, 만생명이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보살적 자아)이다. 바로 이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동기이기도 하다. 생태적 실천과정은 이러한 생태적 깨달음이 함께 해야 한다. 〈끝〉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